

돌에 새겨진 사진 속 그 소년

인천 인현동 화재 그후 25년



MT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1999년 10월30일 인천 인현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57명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87명은 화재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당국에서는 참사 현장 인근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2004년 위령비를 건립했고, 2005년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석을 세웠다. 매해 화재가 발생한날 유족들은 아이들의 추모식을 진행한다. 사진은 위령비와 추모석의 모습

25년 전 그날은 꽤 쌀쌀했다. 기자가 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던 초짜 기자에게는. 하지만 또 다른 현장의 누군가에는 엄청 뜨거웠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끝내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 1999년 10월30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사회부 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다. 경찰팀 부팀장(바이스)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소식 못 들었니? 인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크다는데 너가 바로 가 봐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택시라도 잡아타야 하나 싶었지만 지

하철이 가장 빠르겠다 싶어 왕십리역에서 인천 쪽으로 향하는 1호선 열차에 올라탔다.

인천 근처에 도착할 때쯤 겨우 화재 발생장소(인천 중구 인현동 상가 건물)를 알게 됐지만 화재 진압도 채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어 현장에는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았다. 궁리 끝에 간 곳은 피해자들이 수용돼 있다는 병원이었다. 계속되는 앰블런스의 사이렌 소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급차 대열에 응급실 입구를 막아서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속에서는 사건 경위조차 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고 새벽쯤에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으로 불린 그 날 사고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한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 한복판에 있었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한 것은 꽤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날 2층 호프집에 있던 아이들 120여 명 중 단 한 명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다. 병원과 구청, 장례식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도 말이다.

사실 불이 난 곳은 호프집이 아닌 내부 수리 공사 중이었던 지하 노래방이었다. 노래방에서 실화로 난 불이 벽을 타고 올라가 2층, 3층까지 올라붙었고 화염과 유독가스까지 겹치면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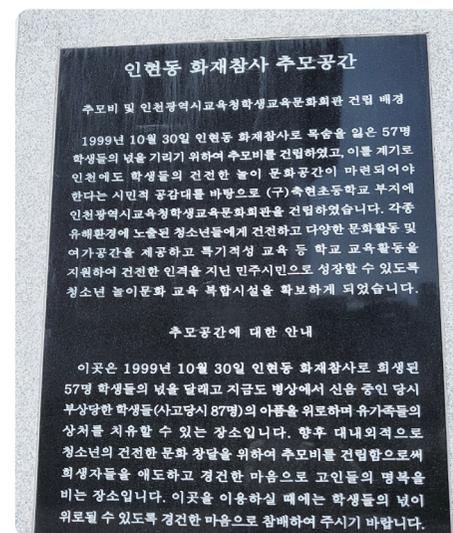
일요일인 다음날 일정도 병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닌 장례식장과 영안실을 찾아야 했다. 병원들 사정상 50여 명의 희생자는 한곳에 수용하기 어려워 분산됐다. 대학병원이 아닌 어느 장례식장 빈소가 내게 맡겨진 행선지였다. 정확한 지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희생자에 얽힌 사연을 찾으라는 것 정도가 생각난다. 사실 그때는 사연보다 사진을 구하자라고 생각했다. 그해는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화재사고 등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현장 취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아드님(또는 따님)을 잃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러차례 빈소 주변을 맴돌았고 문상객이

나 희생자의 가족들이 찾을 때마다 빈소가 슬렁였던 기억이 난다.

한 남자 고교생 A 군의 빈소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것 같다. 다른 곳보다 사람이 적어서였다. 내가 빈소 주변을 떠나지 못하자 어떤 남자분이 걸로 다가와 “혹시 학교나 경찰서에서 오셨나요” 하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A 군이 자기 조카라고 밝힌 그분은 “사실 신문사에서 왔다”면서 사정을 말하는 내게서 혹시나 사고 경위 같은 걸 더 들어보시려는 눈치였다. 사고 현장에 가보지 못한 내가 아는 것과 그 가족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아쉽고 애통할 뿐이었다.

그나마 고생한다면 음료수 한 병을 내미는 그분께 더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 ‘어려우시겠지만 A 군 사진이라도 한 장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당일 행적에 대해 더 잘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지금 같으면 확보된 거라도 사진을 일부러 흐리게 하거나 눈 부분을 가렸을 테지만 그때는 사진을 끝이곧대로 싣던 때였다. 사건이나 피해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사진이나 앨범을 통째로 들고 나왔다는 선배들의 무용담이 저녁 술자리마다 흘러다니던 때였다. 물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슬픔으로 휩싸인 빈소에서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증명사진이라도 있는지 물어볼게요’ 라고 선선한 답이 돌아왔다. 몇십분을 기다리자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한 증명사진 한 장을 받을 수 있었다. 신문에 신게 되면 게재된 신문을 보내드리거나 못 실리면 사진이라도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채 병원문을 나섰다. 그날 밤 늦게 신문사로 돌아와 사진을 건넸다. ‘이 친구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 가 우뚝해 하는 야근당직 선배의 시큰둥한 반응 때문인지, 다음판까지 기사를 갈아엎기까지는 취재내용이 부족했던지 A 군 사진은 결국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사건 경위가 조금씩 드러났다. 화재 현장 건물의 2층 라이브 호프집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는데, 당시 호프집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전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을 팔다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계속 영업을 강행했던 것. 화재 당일에도 호프집 주인은 학교 축제로, 시험이 끝나 주말이라 고교생이 몰리는 시기를 틈타서 가게를 열었고 돈을 챙겼다. 당시 소문으로는 돈을 내지 않은 손님들에게 호프집 주인과 지배인이 제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말도 있었다.

며칠, 몇 주가 지났고 몇 차례 회사에서 내근을 하면서 데스크 책상을 지날 일이 있었다. 내가 구해온 조그만한 사진은 책상 데스크톱 컴퓨터 자리 귀퉁이에 놓여있었다. ‘저 이거 가져다가 유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뒤로 회사를 옮긴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후회스러운 대목이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결탁 공무원이 물러나고 경찰 수뇌부가 교체되는 혼란이 이어졌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했고 희생자들은 1999년 12월31일에서 2000년 1월1일로 새천년이 열린다는 밀레니엄 열풍 속에 조금씩 잊혀져갔다.

화재가 있고 50~60일이 지났던 날로 기억한다. 회사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 이순신 동상 근처에서 시위가 있으니 가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현장에 가 봤더니 검은 상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차도와 이순신 동상 사

이에서 도열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광화문광장도 없던 때라서 차들이 썩썩 지나가는 도로 가운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위태로워 보였고 접근도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내게 사진을 건넸던, A 군의 삼촌이 눈에 띄었고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기자님, 아직도 별로 해결될 게 없어요’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 조카 사진은 어떻게 됐나요’ 물어오실까 맘에 걸렸지만 그 일은 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식과 형제들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들은 휘날리는 눈앞에서 한없이 추워 보였다.

유족들의 눈물과 피해 부상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사고는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다. 사고 후 인천시 측은 ‘청소년 보호육성 종합계획’과 함께 학생들이 즐길 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후로도 대형 재난사고는 이어졌다. 화재사고가 난 지 15년 뒤인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 어른들과 기성세대의 여전한 무신경과 안전의식 부재는 있을만하면 참사로 이어져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사고 지점 인근,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학교가 있던 자리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기면서 위령비가 건립되었

다는 걸 알게 된 건 최근이었다. 위령비에 가면 취재현장에서 사진으로만 만난, 희생자 중 한 명인 A 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제대로 보도해 주지 못해 진상규명과 사후수습 등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당직이었던 그날 분주함에 오갔던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지난봄 근무가 없는 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차를 몰았다. 교육문화회관 한켠에 있는 학생 희생자에 대한 위령비 앞에 섰다.

A 군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했고 희생자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안내문에는 ‘인천에도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회관을 건립했다’고 적혀 있었다. 불법영업을 하고, 화염과 유독가스 등 때문이지만 화재현장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꺼내주지 못한 어른이 아닌 건전하지 못하고 유해한 곳에 간 것이 문제인양 책임을 돌리는 듯한 문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현동 화재’가 아닌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기억하는 내 자신의 무신경도 돌아봤다. 놀러 간 희생자들이 문제였다고 초기에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됐던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했는데 ‘그렇다면 집에만 있어야 하나. 20여 년 사이 달라진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위령비와 희생자 이름들을 잠시 뒤로 하고 교육문화회관에 들어가 봤다. 각종 공연장과 체육관, 영화감상실, 탁구장, 노래방, 요리실, 만화방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어 통상적인 교육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췄나 싶었다. 대형 체육관에는 평일이라 그런지 체육수업을 하는 듯한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25년 전 형과 누나, 언니, 오빠들이 겪었던 뜨거움과 슬픔을 기억하는지도 궁금해졌지만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다시 위령비로 돌렸다.

조금씩 희미해지는 위령비 밑동의 어느 시인의 애도시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결코 참척의 슬픔 없는 세상을 가꿀 것이니...’

‘그런 세상이 왔나’ 쓸쓸해하며 발길을 다시 서울로 돌렸다. 서울광장 구석진 곳에 자리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합동분향소는 지난 6월16일 499일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추모공간은 인근 부림빌딩 1층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옮겨졌다.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기억공간은 몇 년 전까지 광화문광장에 있다가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여정이 시작됐다. 광장에서 조금은, 아니 많이 외진 곳으로 옮겨진 것이지만 망각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말이다. 위령비 속 글자로 남은 25년 전 인천 그 친구의 바람도 꼭 그랬을 것이다. 사진은 사라졌지만 말이다. 🍀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